

이데일리 확인 추가

인간·자연의 경계에 있는 지평선이 주는 치유의 풍경

입력 2021.03.10. 오후 6:29

김은비 기자 >

필립 미쇼-뤼즈 '힐링 랜드스케이프'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담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평선은 인간이나 자연, 그 어느 곳에도 귀속되지 않는 동시에 양자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독일의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는 저서 '인간과 공간'에서 지평선을 이렇게 정의 내렸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에 끝없이 수평으로 이어지는 지평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연적 현상이다. 인간은 결코 지평선에 다다르지 못하지만 그 지평선은 계속해서 인간을 따라 움직인다. 지평선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 이유다.



필립 미쇼-뤼즈, 지평선 시리즈 무제, acrylic and mica on wood, 20x20x6cm, 2021 (브루자에 히가이 갤러리 제공)

프랑스 출신의 작가 필립 미쇼-뤼즈(Philippe Micheau-Ruiz)는 이런 지평선의 속성을 캔버스에 담아냈다. 11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브루자에-히가이에서 열리는 그의 첫 국내 개인전 '힐링 랜드스케이프'(Healing Landscape)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며 석판화로 이름을 알렸던 작가는 최근 지평선과 자연의 풍경을 주된 작업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평선을 주제로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갤러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작가는 낯설 수 있지만, 지평선을 주제로 우리의 존재를 성찰했다는 면에서 국내 관람객의 흥미를 끌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크고 작은 작품에서 지평선은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풍경은 제각각이다. 오히려 추상적인 만큼 관람객들의 상상력의 여지가 커진다. 마치 창 밖으로 펼쳐질 듯한 넓고 푸르른 들판과 그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느껴지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겨울 풍경이 담겨 있기도 하다. 옆에는 봄을 알리는 푸른 새싹이 피어나기도, 청명한 여름 하늘이 지나가면 이내 노을 빛 머금은 가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번 작품에는 작가의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하다. 미쇼-뤼즈는 어린시절을 스페인 북서부 시에라 데 그레도스 산맥에서 보냈다. 푸르고 광활한 산맥의 모습을 작가는 캔버스에 지평선의 형상으로 담았다. 특히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면 산맥의 잔상을 담기 위해 그는 아크릴과 함께 운모(화강암 중의 하나로 빛나는 성질이 있음)를 작품에 사용했다. 그만큼 작품은 햇빛과 조명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관계자는 "그의 화폭에 몰입하다 보면 주는 치유적 풍경이 있다"며 "그것이 때론 명상의 공간이 되기도, 우리 각자가 가진 풍경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Kakao,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데일리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 68兆 끌어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역대 최고 기록
- [단독]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시흥시 땅도 샀다'
- "이재명 여배우와 수상연애"...김부선 "팩트는 총각사청"
- '남편 성기 절단' 70대 "평생 모시겠다"... 남편 반응은?
- "배우 지수가 성폭행?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몰아간 것" 동향 증언

구독한 기사는 네이버 언론사편집관에서 볼 수 있어요 >

김은비 기자 >

구독자 521 | 응원수 695

만남하세요.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입니다.

- "3조 추정 '이건희 컬렉션', 100년치 재산으로도 못 사...물남재 도입해야"
- "없어서 못 팔았다"...화랑미술제 역대급 실적 어떻게 가능했나

좋아요 4 | 공감해요 0 | 슬피요 0 | 장난요 0 | 구독기사 좋아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이데일리 언론사홈 바로가기](#)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이데일리가 결정합니다.](#)

1개의 댓글 **내 댓글**

현재 댓글	작성중 삭제	규정 미준수
1	0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물린빛에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you****

2021.03.11. 23:26

기사를 보니 마치 전시를 관람한 듯 전시장 풍경이 그려집니다. 주말에 봄을 느끼러 전시장에 한번 둘러 봐야겠습니다. 필립 미쇼-뤼즈 '힐링 랜드스케이프'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담아

답글작성